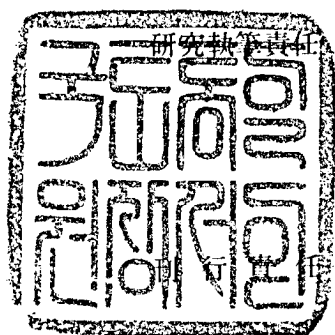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



： 金 永 洙
(國土統一院 常任研究委員)

： 徐 成 雨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概 說	3
2. 正統性的 概念	8
가. 一般的 概念	8
나. 正統性概念的 現代的 特性	11
다. 分斷國에 있어서의 正統性	13
라. 韓國의 民族史的 正統性的 理論定立 方向	14
3. 韓國民族史의 正統性	16
가. 民族史 (觀) 의 意味	16
나. 우리民族史의 主流	17
4. 大韓民國의 法統性	24
가. 國號를 통해 본 正統性	25
나. 「大韓帝國」法統의 繼承問題	26
다. 所謂「抗日革命傳統」의 內容과 그 虛構性	33
라. 大韓民國政府 樹立의 正統性	36
마. 國家의 象徴物 계승	37
5. 民族史的 正統性과 平和統一	41

1. 概 說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한 理論을 定立하고 體系化하여야 할 必要性은 分斷이 深化되어 갈수록 심각하게 擡頭된다.

分斷初期인 1950年代만 하더라도 國內的으로 우리國民들의 意識속에 6.25 動亂으로 인한 北韓共產集團의 殘忍性和 더불어 反民族性이 餘地없이 露呈되어 全國民이 스스로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意識하게 되어, 우선 主體的인 條件에 있어서 南·北韓間의 正統性的 問題는 論議되고 意識할 必要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보다도 우리 國民들이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하여 確信을 갖게되는 것은 1948年 制憲國會에서 制定公布한 憲法의 前文 事項이다. 그 前文에서「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己末 3.1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獨立精神을 계승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立함에 있어서……中略…… 우리의 正當한 또 自由로이 選舉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會에서 權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하였다.

다시 위 前文內容을 자세히 정리하여 보면「3.1運動으로 (舊) 大韓民國이 世界에 宣布한 獨立精神을 계승하여」現 大韓民國을 「再建」하는 것으로 3.1大運動으로부터 舊大韓民國을 거쳐 現大韓民國을 再建하는 것으로 分明히 2段階로 되어있다.

또한 對外的으로도 國際政治의 冷戰的 構造속에서 自由友邦國家들은 北韓共產集團에 대하여 封鎖政策으로 一貫하여 왔으며, 또한 北

韓集團의 當時 宗主國이라 할 수 있는 中共에 대하여서도 侵略主義의 烙印이 엄연히 찍혀 있었다. 이에 더하여 1950年代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 合法政府」라고 하는 國際的 公認만으로도 우리의 正統性은 定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南北韓 國民 모두가 한결같이 8.15解放과 더불어 北韓地域이 소련의 軍事的 占領下에 새로운 衛星國을 設置하기 위한 괴뢰로서 金日成이 내세워지고, 北韓住民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一方的으로 民族陣營의 人士들을 숙청하고 北韓全域을 「모스크바」의 意思에 따라 그 괴뢰에게 떠맡겨졌다는 事實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當時로서는 世代의 差異없이 國民모두가 北韓共產集團의 性格에 관하여는 分명한 認識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國際社會에 있어서도 그 存在가 外面當하고 있는 不法的 集團이라는 事實에 대한 明確한 認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相對적으로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하여는 이를 主張하고 定立하지 않아도 國內外的으로 우리의 正統性이 事實 그대로 直觀적으로 充分히 認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50年代를 거쳐 60年代와 70年代를 지나는 동안 이와 關聯하여 國內外的으로 많은 狀況의 變化를 갖어왔다. 그것의 첫째는 國際的인 狀況의 變化요, 둘째는 北韓集團의 民族史的 捏造 運動이고 셋째는 우리들의 이에 대한 安易한 態度를 들 수 있다.

우선 먼저 國際的인 狀況의 變化로서는 70年代로부터 表面化 하기 시작한 東西陣營間의 「데탕트」 추세가 물고 오는 충격과 또한 中共의 國際社會에로의 進出이 가져오고 있는 比重에 있어서 第3勢力圈

이 政治的 壓力勢力으로 擡頭되고 있다는 事實, 그리고 國際聯合의 機能的 또는 構造上的 變化에 따른 性格上的 變質이 일고 있는 點을 들 수 있으며, 끝으로 印支戰爭의 結果는 越南의 共產化로 終幕을 告했다는 事實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 便乘하여 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北韓集團의 國際的地位가 相對적으로 上乘하고 있으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南北緊張緩和에 도움을 주는 條件으로 73年에 천명한 우리의 6.23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등이 作用하여 自由陣營의 一角에서 北韓共產集團에 對한 批判的 視角이 鈍化되어가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는 金日成 一黨이 그들의 反民族的인 正體를 음폐하기 위하여 虛僞의 正統性·造作에 注力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金聖桂」를 소위 「金日成」으로 造作하여 民族主義者로서의 「이미지」를 풍기게한 것 부터가 正統性を 造作하기 위한 第一次的 措置였던 것이다. 8.15直後 解放의 기쁨속에 民族主義的 感情이 高潮되어가던 時流를 利用하여 「民族主義」나 「自主獨立 國家建設」이나 「民主主義」나 하는 用語로 階級革命과 共產黨의 設置를 陰蔽하였다. 뿐만아니라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共產陣營의 兩大勢力인 中共과 蘇聯이 反目 對立으로 分裂되기 始作하면서부터 그들은 金日成 個人崇拜를 骨字로 正統性的 捏造方向을 굳히기 시작하였고, 60年代 中半期부터는 「主體」의 스토건을 急速히 내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主體」와 「唯一思想」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民族史를 歪曲하고 金日成과 그 家系를 神格化시킴으로써 反民族的인 갖가지 捏造된 虛僞宣傳을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歷史的 事實의 捏造과 歪曲, 各種 大衆媒體를 動員하고 洗腦機構를 動員함으로써 北韓住民의 意識을 調整하여, 對外的으로는 平和攻勢를 展開시켜 그들의 好戰的 侵略主義의 本質을 隱蔽하고 한편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毀損시키기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攻勢는 70年代를 거쳐 80年代에도 더욱 兇惡하게 展開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우리國內의 狀況의 變化다. 지금 우리社會에는 6.25를 體驗하지 않은 世代가 이미 30歲以前의 世代로 梅우고 있어 北韓共產集團의 反民族的인 性格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年齡層이 점차 增加하고 있는 點이다. 또한 지난 期間동안의 安定期와 經濟의 成長發展을 거치는 동안 安逸한 生活風潮로 말미암아 國民一部의 安保意識이 抽象化되고 있다는 點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우엔에 依하여 唯一合法政府로 承認된 正統性에 대한 利點을 重視하고 實利를 輕視한 지난期間의 우리의 安易한 態度는 그後에 일기 시작한 北韓의 正統性 挑戰을 감당하는 面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였다는 責務를 切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우리가 하여야 할 當面한 責務는 첫째로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體系的인 理論으로 定立하고 그것을 有效하게 國民들에게 周知시키므로써 韓半島위에서 大韓民國이 唯一한 正統政治共同體라는 證거와 唯一的으로 우리가 民族史를 繼承하고 있다는 確信을 抱持토록하여 온 國民이 民族史的 使命感을 가지고 平和統一이라는 崇高한 理念 밑에 總團合할 수 있는 「國民的 總和」의 源泉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北韓共產集團이 그동안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僞裝을 위하여 構築해 온 各種 理論體系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떠한 手法으로 宣傳하여 왔는가에 대한 立體的인 把握 또한 要請된다.

同時에 그와 같은 虛構的인 正統性 主張의 論據를 論理的으로 또는 現實에 立脚하여 批判하고 暴露하는데에도 焦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理論的 解明은 오늘날 國際社會의 輿論을 순화시키는 同時에 우리의 國際的 紐帶를 強化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相對的으로 北韓集團의 歷史捏造와 非正統을 國際社會에 널리알려 窮極的으로 大韓民國의 主導下에 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國際的 正統을 마련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問題意識과 視角에서 本稿는 아래와 같은 內容을 記述하고자 한다.

첫째로 「民族史」 및 「正統性」, 그리고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概念을 可能な 限 明確하게 定立하고자 한다. 現在 우리 周邊에는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말이 흔히 쓰여지고 있으나 그 概念의 混線이 심하여 이에 대한 說得力을 얻기가 어렵다. 그 概念의 定立이 明確, 劃一化되기는 매우 어려우나 그 概念의 共通分母的 要素는 檢出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悠久한 우리 民族史의 主流를 整理하고 民族史의 흐름에서 볼 때 大韓民國이 이를 繼承하고 있음을 밝히는 同時 北韓集團의 우리 民族史에 대한 歪曲 捏造事實도 叫明하고자 한다.

셋째는 國家法統 계승面에서의 考察이다. 民族史的 正統性은, 우선 民族史的 次元에서 究明되어야 할 問題이나 政權史的 次元에서도 論證되어야 한다. 大韓民國이 全民族史的 脈絡을 이어 오면서 1910年 韓日合併條約以前의 大韓帝國의 繼承者임을 밝히는 法的인 側面에서의 諸根據도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國家의 象徴으로서 계승되어 온 象徴物(國旗, 愛國歌 등)을 계승하고 있는 점도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끝으로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一面으로만 理解될 수 없고, 그것은 過去와 現在를 잇는 民族史的 계속성위에서 理解되어야 함으로 大韓民國의 主導로 平和統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論證하고자 한다.

2. 正統性的의 概念

가. 一般的 概念

歐美의 政治學者들이 政治的 正統性이라 할 때의 正統性(Legitimacy), 즉 「리지티머시」란 우리말로 表現한다면 正統性, 合法性, 正當性 또는 認定받은 大義名分 등으로 表現될 수 있는 概念이다. 學者들사이에서 通用되고 있는 政治正統性이란 「한 國家社會가 그 構成員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說得力을 지니고 있는 機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一定한 政治體制가 그 社會構成員들로 하여금 그 體制야말로 國民들을 支配할 權威와 權能을 갖고 있다고 信賴하도록 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면 그런대로 그 政

治體制은 正統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政治體制든지 正統性의 保持는 그 政治體制의 存續에 있어서 基本的이고 必須的인 要求이기 때문에 正統性의 유지는 必要不可缺한 恒久的인 政治目標로 看做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正統性의 確立과 維持를 위한 持續的인 追求過程을 가리켜 소위「正統化」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正統性」은 「正統化」를 可能케하며 또는 正統化는 正統性을 유지토록 한다는 相關關係에 있음을 알게 된다.

즉 國家는 國民들에 依하여 正統性이 認定되기 때문에 그 制度나 具體的인 政策이 正當化되는 側面도 있지만, 또한 그 反對로 國家의 制度, 政策들이 國民들에 依하여 正統的인 것으로 受容되는 「政統化過程」이 뒤따를 때에만 비로소 正統性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早晚間 그 權力體制의 正統性은 喪失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致에서 볼 때 北韓集團이 正統性을 造作하기에 血眼이 되고 있음을 理解할 수가 있다 하겠다.

이점과 관련하여 「멘첸」은 「國家란 決코 힘에 의한 強制만으로 存續되는 것이 아니며, 國家란 人間의 「服從性」에 못지않게 人間의 「信賴性」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國家의 目的이란 決코 단순히 國民들로 하여금 服從토록 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國民으로 하여금 「服從하고 싶어지게」 誘導하는데 더 큰 目的이 있는 것이라 主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正統性을 얻기 위한 權力의 正當化를 어떠한 手段과 方法에 基礎하여 達成하고 있는가를 類型別로 區分한 사람이 「막스·웨버」이다. 그의 分類에 의하면

첫째, 理性的 士台를 根據로 한 正統性: 正統性가운데는 國家權力의 最高權者가 國民들의 理性에서 우러나온 合理的인 思考에 기초하여, 그의 權力獲得過程이 合理的이고 正當한 過程에 의한 것임을 確信시킴으로써 그의 權威를 認定받아 確立하는 所謂 合理的 權威에 根據한 正統性이고,

둘째, 傳統的 士台를 근거로 한 正統性: 國民들의 信念體系에 기초하여 最高權力者의 權威가 傳統的으로 世襲되어 神聖不可侵의 權威임을 認定받아 正統性을 確立하는 경우

셋째는 最高權力者의 特殊한 人品이나 英雄的 또는 神聖화된 偶像의 存在에 대한 國民들의 崇拜에 기초한 카리스마적인 權威가 正統적으로 認定되는 類型이다.

한편 學者들은 이와 같은 類型의 權威가 古代社會나 中世社會에 있어서는 종종 超自然的 神秘主義나 傳說과 같은 方式에 의하여 社會構成員에게 傳達되고 君臨할 수 있었으나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오히려 視覺的, 象徴的, 聽覺的, 言語的 象徴의 造作이나 또는 學校教育을 통한 「이데올로기」나 信念體系의 確信등을 통하여 大衆意識의 造作에 依存하고 있음이 特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現代的 手法에 의한 正統性 確立의 根據가 窮極的으로 어떠한 內容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意見이 支配的이다. 첫째, 國家가 지향

하는 價値와 國民이 지향하는 價値에 관한 意識이 상충되지 않음이 說得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正統性 유지에 있어서 重要한 一部를 形成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國家의 正統性은 國家權力의 장악과정이 正當한 것으로 납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現代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國民의 의사가 올바르게 代辯되고 있다는 납득이 國民에게 주워져야 하고, 넷째는 政治의 產物들이 결코 社會正義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確信을 國民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네가지 條件이 具備될 때 國家의 正統性은 굳건히 確立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인 것이다.

나. 正統性 概念의 現代的 特質

正統性의 概念과 관련하여 여러가지의 異見 學說이 있으나 이러한 諸說을 綜合하여 본다면 어떤 政權이나 統治權의 正統性 形成 基準은 대개 다음의 세가지로 區分이 可能하다.

- ① 政權變化와 관계없이 存續하여 온 오랜 傳統國家와 領土의 繼承與否
- ② 政權의 成立이 被治者의 同意에 의한 것인가의 與否, 그리고 政權의 存續 및 交替가 公正하고 合法的인 節次로 進行되고 또 定期的인 選舉制度에 의하여 國民의 信任을 물어 政權에 위임된 統治權에 대하여 再確認받고 있는지의 與否
- ③ 어떤 統治結果로 統治權行使의 根本目的인 公共利益 伸張에의 공헌 여부, 여기서 公共利益이라 함은 國民의 自然權伸張을 뜻하고 具體的으로 社會의 安定과 秩序確立, 近代化 그리고,

經濟生活의 向上등을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 列舉한 諸要素를 고려하여 정리해 보면 現代社會의 正統性의 特性은 아래와 같은 네가지 型態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歐美의 自由民主國家들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概念

둘째 第2次 世界大戰以前의 軍國主義的 全體主義 國家들에서의 正統性의 論理

셋째 오늘날 共產陣營의 諸國家에 있어서 正統化의 構造

넷째 開發途上國家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正統化의 論理 構造

위 네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國家에서의 正統性 유지과정의 特性을 보면 歐美의 自由民主主義 諸國家들에 있어서는 民主主義를 그政治節次에서 特性을 찾으려 하고있다. 따라서 國家의 正統性은 言論, 集會, 結社의 自由와, 反對의 自由등 國民이 政治權力을 수용하여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民主的인 節次와 條件이 具備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正統性의 測定値로 삼으려는 경향을 特徵으로 한다.

그러나 軍國主義的 全體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주로 「種族」이나 「國家」란 象徴을 통하여 正統性을 維持하려 하였고,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階級」이란 概念을 통하여 正統性의 維持를 企圖하고 있다.

한편 新生 開發途上國家들은 대부분이 그 植民地的 經驗 때문에 自然히 民族主義的 感情에 呼訴함으로써 大衆의 民主主義的 感情과 政權과의 一體感에 호소하는 것이 正統性 유지의 一般的 型態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正統性의 手段에서 볼 때 歐美 自由民主主義를 除外한 기타 「카테고리」에 屬하는 國家들에 있어서는 격렬한 大衆造作과 強力한 統制 및 때로는 過多한 暴力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을 特徵으로 하는 것이다.

다. 分斷國에 있어서의 正統性

王權의 權威가 正統性의 根幹을 形成하여 온 東洋社會와, 市民社會의 出現으로 自由主義의 隆盛과 함께 오히려 政治權力의 分散과 相互牽制속에서 正統性을 찾으려는 西歐社會와는 歷史的 段階와 社會的 條件이 다르다. 따라서 正統性의 概念도 雜多한 內容으로 規定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20世紀後半의 韓半島에 있어서의 正統性의 基準은 어디에다 들것이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첫째는 民族史的인 正統性이요,

둘째는 社會體制上的 正統性이란 두가지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나라를 잃었던 民族으로서 새出發한 우리로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鬪爭이 우리 近代史, 現代史의 根幹을 이루는 것으로써 그와 같은 民族主義 志向을 계승하는 社會일수록 韓半島에서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모든 社會構成員이 自由롭게 主權行使에 參加하고 있으며 社會生活에서의 最大限의 國民福祉의 惠澤을 받을 수 있고 社會正義가 支配하는 民主的 社會秩序가 確立된 社會에서만 正統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社會構成員이 自身の 歸屬感에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또는 所屬되어 있는 社會를 正當한 社會라고 인식하고 있는 社會야말로 正統性を 守護하고 있는 國家社會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우리는 韓半島에 있어서 民族史的 正統性 概念에 관하여 再整理해 봄으로써 과연 民族統一의 主體는 어떠한 勢力이어야 하며 또한 왜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 韓國의 民族史的 正統性 理論定立 方向

위에서 본 正統性에 관한 歐美社會의 一般的 概念과는 달리 우리는 몇가지의 特殊性을 띠고 있다. 그 첫째는 政治文化의 傳統때문이며, 둘째는 分斷國으로서의 政治的 特殊事情 때문인 것이다.

위의 論述을 통하여 正統性概念의 보편적 實態를 歷史的인 側面을 비롯하여 諸側面에서 檢討해 보았거니와, 「正統性」이란 어떤 主體가 갖는 正當한 法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民族이 主體가 되어야 하는 民族史에서는 그 民族의 正統性이 무엇보다도 重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民族史的 正統性은 民族이란 主體가 갖는 「主體性」과 國家라는 主體가 갖는 「正統性」위에서 成立되는 것으로서 民族史的 正統性を 위해서는 먼저 民族의 主體性を 確立하여야 하고, 그 위에 國家的 次元의 正統性を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民族史的 正統性이라는 것은 過去에 있었던 事實에서만 찾

을 것이 아니고, 現在 있는 것에서도 찾아야 하고, 未來에 까지도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즉 歷史를 하나의 繼續的 現象으로 理解한다면 단순히 過去의 民族史的 遺産을 이어받는다는 그것 만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現在 그것이 지니고 있는 民族主義的 屬性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이란 「우리 民族史의 脈絡속에서 나타나는 民族主義의 中核的인 모든 傳統과 價値를 繼承具現함으로써 法的으로나 道德的으로 우리 國民들에 依해 正當한 것으로 承認될 수 있는 統治의 基礎的 名分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民族史的 正統性의 理論定立方向은 1次的으로 앞에서 말한 民族史에 符合되는 것임을 立證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分斷國이라는 韓國의 特殊性에 비추어 볼 때 政治史, 思想史 및 文化史 등의 諸局面을 총망라하는 ①民族史的 側面은 勿論이고 統治制度 및 社會, 經濟體制面과 ②統治結果로서의 生活水準面, 그리고 ③國際法的 傾向에서의 檢討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定立 方向에서 要求되는 두가지의 側面이 있다. 하나는 歷史的 또는 動態的 接近에 依한 民族史속에서 우리의 正統性을 連結시키는 作業이고, 또 한편으로는 平面的 또는 靜態的 接近이라 할 수 있는, 우리社會의 優秀性의 立證과 우리社會의 進路야말로 우리 民族史의 要請에 符合되는 것임을 立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 우리의 正統性 立證過程에 있어서 항상 留意하고 잊어서는 안될 것은 北韓集團의 捏造된 正統性 根據의 虛僞성과 기만성이란

점이다. 그들을 民族史의 歪曲과 捏造를 서슴없이 敢行하고, 소위「主體」를 내세워 民族主義的 感情을 유도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3. 韓民族史의 正統性

가. 民族史(觀)의 意味

흔히 말하는 民族史 또는 民族史觀이라는 價値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우선 알아보자. 民族史란 民族의 形成과 發展, 統合과 膨脹, 그리고 이와 關聯된 文化創造등의 歷史過程에서 그主人이 全體 民族成員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王朝史(觀)과 階級史(觀)와의 比較를 통하여 그概念이 더욱 확실해 진다.

王朝史는 단순한 政權史로서 公權力을 掌握한 國家支配層과 統治라는 立場에서 歷史를 엮는 것인데, 그中心은 王이요, 또 支配者들이다. 이러한 王朝史나 國家를 中心으로 把握하는 國家史의 側面보다도 民族史의 傾向이 보다 重要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의 政治史의 경우 民族을 主體로 한 民族史의 側面에서는 한번도 그 歷史의 推進力이 斷絶된 일이없다. 우리의 民族史는 民族的主體活力을 가지고 永續性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 그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政治史가운데 日帝植民統治 36年은 歷史앞에서 처음으로 國家라는 主體가 사라져야 했던 政治的 危機였다. 이를 國家的 側面에서 본다면 韓國의 近代政治史는 일단 斷絶(潛在적으로로는 持續되었지만)이라는 悲劇을 否認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그같은 政治史的 悲劇속에서도 民族을 主體로 하는 民族史의 側面에서는 斷絶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한 歷史의 繼承과 創造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日帝 36年동안 계속된 民

族史의 主體로서의 韓民族의 國家回復을 위한 民族主義的 鬭爭이었다. 이것이 王朝史나 國家史는 斷絶되었어도 民族史는 繼承되어 왔음을 말한다.

또한 階級史觀과 比較하여 볼 때 그들은 階級이란 原則적으로 프롤레타리아가 中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共產黨을 信奉하는 共產貴族들만을 中心으로 한 階級鬭爭過程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階級史觀은 共產主義的 階級意識을 條件으로 한다. 對外的으로는 勞動階級에 依한 國際主義를 주장하며 對內的으로는 共產貴族를 중심으로 하고 그외의 多數의 對象에 대해서는 獨裁를 當然한 것으로 規定하면서 階級間的 鬭爭과 暴力을 불가피한 것으로 合理化한다.

民族史에서 民族成員 모두가 歷史의 主體라고 한다면 王朝史나 階級史는 그 主體가 民族成員 一部에 局限된다는 점에서 歷史를 담당하는 成員의 範圍에서 우선 差異가 있다. 뿐만아니라 團結性, 所屬性, 均等性등 여러側面에서 差異點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民族史의 正統性」이란 말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歷史속에서 올바른 傳統을 繼承하고 있다는 意識狀況과 관련된다. 만일 우리가 民族史의 正統性을 繼承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歷史속에서 傳承되고 올바른 「傳統」을 繼承하고 있다는 確信感과 自信感에서 可能해 진다.

특히 分斷以後 南北韓어느쪽이 正統性을 繼承하고 있느냐의 問題도 文化의 뿌리가 「傳統文化」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와 關聯된다. 異端的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우리民族의 傳統文化의 뿌리를 자르고 共產主義, 社會主義라는 異質文化를 接木시키고 있는 만큼 非正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우리民族史의 主流

위의 같은 觀點에서 우리의 民族史의 主流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數千年 民族史를 회고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民族은 밖으로부터의 무서운 挑戰과 안으로부터의 試鍊을 克服하면서 한결같이 民族的 總和性을 기반으로 줄기찬 民族生存力과 세찬 歷史創造力을 발휘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歷史는 이 民族에게 統一이라는 위대한 말을 두번이나 體驗케 했다. 하나는 新羅의 三國統一(677年)이요, 다른 하나는 高麗의 後三國統一(918年)이다. 新羅統一은 무엇보다도 獨立된 기반위에서 韓國民族의 形成을 可能케 했기 때문에 歷史的 意義를 갖는다. 또는 단순한 三國間의 和解가 아니라 唐의 侵略으로부터 政治的 獨立을 지키는데 成功하였다는 점에서 統一의 特性을 갖게 된다.

그러나 高麗의 後三國統一은 戰爭으로 爭取하였다기 보다 說得으로서 達成한 면이 강하다. 그래서 前者는 國土統一(外的統一), 이 爲主였다면 後者는 意識의 統一(內的統一)까지 展開시켰던 점에 커다란 意義가 있다. 특히 民族意識이 統一된 政治組織下에서 國民生活이 共通的 基盤위에서 營爲하는 것을 통하여 形成되어 간 만큼 高麗의 後三國統一의 意味도 이런 觀點에서 높이 評價되고 있다.

즉 高麗初期 太祖 王建은 豪族聯合策과 婚姻政策을 통하여 敵對意識의 解消와 異質性 克服에 力點을 두는등 廣範한 地方勢力의 參與와 統合誘導下에 民族의 再統一을 이룩하였다. 또한 意識의 統一이라는 점에서 보면 地方勢力의 廣範한 參與는 中央과 地方과의 文化交流를 促進케 하여 文化基礎를 擴大시켰고, 또 地方豪族들로 하여금 儒教政治思想을 實踐課題로 하여 文化民族으로서의 文化意識을 갖게 했다. 따라서 韓國民族史에서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結合된 시기는 高麗

時代以後로 간주된다. 高麗時代의 民族은 民族意識으로 覺醒된 民族이라기 보다는 「겨레로서의 民族」이었다. 이것은 近代的 民族意識이 싹트기 以前の 段階이다.

高麗는 初期부터 契丹과 女眞族의 침입으로 對外關係가 不安하여 對內的으로 團合해야만 하는 處地에 있었다. 이러한 諸要因은 高麗의 內的統一을 可能케 했고 그로 因한 계속된 힘이 契丹, 女眞族의 侵入을 제압하여 結束된 民族으로서의 底力을 과시하였다.

특히 13世紀初 支配層과 百姓의 괴리속에서 蒙古의 侵略을 (1231-1270) 당하게 되었는데 비록 政權은 崩壞危機에 直面하였어도 百姓들은 결연히 쟁기하여 蒙古에 대한 抗爭過程에서 강인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三別抄의 抵抗은 韓民族의 氣質과 強靱性을 實證하는 것이다. 三別抄와 이에 呼應한 民衆들은 “남과 우리”를 區別케 하는 意識과 우리의 國土(宗廟와 社稷)을 지키겠다는 抵抗精神이오, 民族의 集團的 行態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高麗百姓들은 人間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삶의 문제」에 當面하여서도 強靱한 生活力을 발휘하고 있음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의 先民들은 強靱한 生活力을 갖고, 敵앞에서는 抵抗 力을, 그리고 삶을 위해선 開拓을 하여가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것이 우리民族의 氣質을 응변해 준다. 強靱한 生活力은 人間이 그 리고 民族이 살아가는데 要求되는 條件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러한 強靱性은 集團意識, 民族意識以前에 個個人的 血脈속에 흐르는 性質일 것이다. 人間에 있어서 強靱한 生活力은 人間の 生이라는 複合 的 表現을 단순한 要素로 分解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因子이다.

이러한 因子가 韓民族發展過程에서 民族의 存續과 발전을 위 해서

어떤 形式을 띠고 나타나는가?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民族의 강인한 生活力이 集團的 行態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民族行態의 傳統은 壬辰倭亂時期에 도처에서 일어나는 義兵運動을 통해서 具體化되었다. 民族史에서 이 義兵의 의의는 倭의 侵略과 만행에 대해 民族 모두가 抵抗運動에 참여했다는 점과, 初期의 義兵들은 倭軍의 격퇴와 倡義를 부르짖으면서 自發적으로 결기한 점이다. 그 당시 儒敎에서 勤王정신을 체득한 儒生과 儒敎的 理念으로 訓化된 民族은 傳統적으로 「倭」라고 멸시되던 民族의 侵略을 받아 民族的 敵愾心이 격렬하고 廣範圍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글만 읽던 儒生들(郭再祐, 高敬命, 金誠一)이나 道를 닦던 僧侶(休靜, 惟靜)은 勿論 山中에 피난중이던 農民들 까지도 呼應하여 義兵에 가담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外勢의 侵略을 받았을 때는 職業, 宗派 그리고 派閥도 혼연히 超越해서 모두가 一致團結하여 抵抗하였다는 民族的 運動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外勢의 侵略에 대한 抵抗을 통해서 民族保存에 대한 共同意識이 점점 深化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17 ~ 18 世紀 朝鮮朝 英, 正祖時代에 들어와서 지식인사회에 實學思想이 擡頭하였다. 社會內部로는 실질적 實用性있는 문제에 接近하여 農民의 구제, 商工業의 育成問題가 편성된다. 對外的으로는 民族의 自主性問題를 全幅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試圖는 前에도 高麗末, 朝鮮初期, 一部人士들에 의해서 傳統文化的 固有性(高麗때 李承休, 李朝初. 梁成之)을 주장하여 온 例는 있다. 그러나 多數가 學派를 형성하여 共同的으로 異口同聲 中華로부터의 自主를 주장하였다는 사실이 民族史의 展開過程에서 새로운 轉換點으로 지적된다.

특히 星湖 李翼과 順岩 安鼎福, 茶山, 丁若鏞의 正統論은 中華思

想으로부터 脫出을 시도한 것이며, 東國의 歷史의 個別性과 傳統性을 강조하여 華夷의 無意味함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事大秩序속에서 存立했던 우리民族이 自立的으로 살아야 겠다는 意志의 表象이다.

그중에서 李翼은 “오늘날 中國이라는 것은 大地中の 一片土에 불과한것”이라고 하여 中國中心의 世界觀을 否定하였다. 그는 나라는 大小에 관계없이 獨立된 나라임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中華와는 別個로 獨自의인 文化圈과 國家를 形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實學派에서 싹튼 自己意識이 對內外的 환경에서 公認되지는 못하였으나 民族史의 획기할 만한 記錄을 보인 것은 틀림없다.

또한 이時期 檀君을 단순한 神話的 存在가 아니라 民族의 始祖로 歷史의 始祖로 浮刻시켰다. 이것은 民族의 獨立性에 대한 自負心의 根據를 提供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民族의 政治的 自主獨立을 주장하는 名分과도 連結된다. 이러한 實學派의 自主의 소리가 비록 政策化되지는 못하였으나 民族史의 흐름에서 보면 民族의 生存力을 促進시켜 外勢로 부터의 自主를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또는 對內的 으로도 民衆의 覺醒을 자극시켰다는 점에서, 近代의 民族史觀과 連結된다.

이러한 歷史的 狀況속에서 우리民族은 開港을 하기에 이른다. 朝鮮王國에서 보면 開港은 傳統的인 事大交隣의 國際政治秩序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럽의 近代國際政治秩序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近代政治秩序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民族을, 統治名分으로 하는 近代國家의 形成이 要求된다. 이것은 近代國際秩序의 單位가 近代民族國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未解決의 課題로 오늘에까지 (分斷으로 因하여) 延長되고 있다.

民族史의 흐름은 東學亂을 통해서 基層社會의 意識構造가 변모되어 감을 보게 된다. 그것은 東學亂의 의미를 對外로 日本軍에 대한 民族的 抗爭으로 그리고 對內로는 反封建的인 武力抗爭으로서 支配身分秩序에 대한 抵抗으로 본다면 더욱 明白해 진다.

또 韓末 義兵運動은 1902 年代의 前期와 1908 年代의 後期를 나누어 볼 수 있다. 初期의 乙未義兵은 守舊儒生層이 주축이 되었으나 後期義兵에는 儒生層이 相對적으로 減少된 것으로 나타난다. 日本軍警이 集計한 統計에 의하면 義兵將 255 名가운데 兩班儒生이 25%로 가장 많았으나 75%는 農業, 鑛夫, 面長, 商人, 主事등 여러 계층에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組織的 義兵運動은 失敗로 끝났지만, 部分的으로는 계릴라戰을 벌여 왕성한 抵抗力 즉 生動力을 실증하였다. 여기서 民族의 強靱한 生動力은 外勢에 대한 討賊에 그치는 抵抗만이 아니라 「自主」라는 實體를 政治文化, 歷史의 여러部門에서 보다 發展된 樣態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外勢에 대한 抵抗의 歷史展開속에서 民權의 自主意識의 發露였으며 對內的으로는 民族의 團結力을 또한 刺戟하였다.

더욱 日帝下의 3.1獨立運動을 통하여 民族의 團結力은 더욱 實證된다. 3.1運動은 民族的 抵抗運動이 民族主義的 自覺과 함께 世界史의 進運에 발맞추어 나가려 했다는데 意義를 갖는다. 이것은 政治的 獨立意識이 世界史的 意識의 潮流와 連結되었다는데 的의를 갖고 있다. 즉 그 當時 世界史의 조류는 「윌슨」의 民族自決主義물결속에서 近代民族國家를 형성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世界史的 潮流가 傳播되는 狀況에서 우리가 近代國家形成運動을 했다는 점은 民族的 發展의 모습으로 評價된다.

한편 3.1運動을 民族意識의 發展과 連結시켜 볼 때에 近代民族主義運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對內的으로 行動的 參與를 통해서 民族의 一體感이 비로서 이루어졌다는 점, 對外的으로 民族 모두가 참여하여 自由民主主義라는 政體觀念에로의 志向感이 싹텄다는 점이다. 다시 3.1運動은 日本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했다는 점과 아울러 나라의 獨立을 回復한후 어떤 形態의 나라를 建設하고자 하였느냐 하는 意識에 중요성이 부여된다. 이當時의 民族意識은 近代民族主義에로 志向하는 과정에서 對外的으로는 強靱한 抵抗性이 그리고 對內的으로 大同團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 國際關係에서 보인 우리의 民族史의 潮流와 連結될 수 있었다는 점을 또한 看過할 수가 없다. 3.1運動以前의 民族的 抵抗運動인 義兵은 救國獨立運動이긴 하지만 王朝라는 政體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았다. 이점에서 보면 義兵運動은 世界史와 連結될 수 없었다. 그러나 3.1運動은 民族史의 흐름에서 보면 새로운 國際政治秩序에 참여하기 위한 政治的 條件을 구비하려 했다는 점을 높이 評價하게 된다. 이러한 政治志向感이 오늘과 連結되게 하는 媒介要因이 된다. 이때 近代國家形成運動은 오늘의 우리가 民族分斷의 狀況에서나마 近代國家를 형성하는 기틀이 되었다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憲法 前文은 悠久한 民族史의 계승과 함께 3.1運動의 獨立精神과 傳統을 繼承했다고 明示하였음은 너무나 當然하다 하겠다.

이제까지 民族의 發展過程을 對外關係와 關聯해서 行動的 側面, 意識的 側面을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우리民族의 特性인 強靱性이 歷史環境의 變化와 함께 多樣한 形式을 띠고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단순한 討賊에서 文化, 歷史의 獨自性を 깨달은 이후부터는 점차 對外로부터의 自主성의 名分이 뚜렷하여져 간다(특히 實學派에 의해서) 그후 3.1 運動때 民族의 對外的인 自主, 獨立은 勿論 對內的인 一體感形成 및 同質感의 基礎(民主主義的인)를 마련했다. 韓民族은 反事大主義로부터 脫植民地運動 또는 民族의 自主와 獨立運動의 體驗속에서 統合된 單一民族의 기틀을 共感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民族의 國難克服史 속에서 民族의 얼을 바탕으로 하여 形成되고 繼承高揚된 民族的 總和性은 世界 다른 民族의 民族史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 韓民族의 特異한 個性的 傳統으로서 바로 우리民族의 民族史의 正統性의 本質的 性格인 것이다.

이렇게 歷史的 價値 「모델」로 設定된 民族史의 正統性은 必然的으로 現在와 未來의 韓國史 推進의 原動力이 될 것이며 우리民族 至上命題인 祖國統一의 土臺가 될 것이다.

4. 大韓民國의 法統性

民族史의 正統性을 構成하고 있는 重要한 要素중의 하나가 國家의 法統性이다. 歷史的으로 볼 때 人類는 民族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國家的 테두리」속에서 生活해 왔기 때문에 民族의 主體性은 國家의 正統성과 直結된다. 즉 民族文化創造의 使命과 責任을 直接 擔當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行動할 때만이 歷史의 主體가 가져야 할 正當한 法統인 國家的 正統性을 획득하게 된다. 만약 名分的으로

國家的 法統性を 確保하지 못한 非正統의 政治세력은 비록 政權을 잡았다하더라도 實質적으로 곧 國民의 支持를 상실당하여 나아가서는 國權까지 잃게 되는 경우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民族主體性和 國家的 法統性的 關係는 相互 不可分의 關係에 놓이게 된다.

가. 國號를 통해 본 正統性

우리의 歷史에서 보면 多樣한 의미를 지니는 「한」이라는 語義가 우리國號에 使用하게됨은 重要한 民族史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紙面關係로 자세한 說明은 略함)

그러나 그보다도 朝鮮王朝 末期에 이르러 淸, 露, 日을 비롯한 世界列強들이 그들의 支配權을 韓半島를 비롯한 極東地域에 行使하려고 試圖하는 情勢속에서 高宗은 1897年 「大韓帝國」이라는 國號를 內外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年號를 「光武」로, 王의 地位를 「皇帝」로 밝혀 自主獨立의 자세를 分明히 하였다.

그뒤 日本의 強迫에 의하여 韓日合併이 이루어졌으나 大韓의 國民들은 1919年 3月 1日 民族代表 33人이 中心이 되어 獨立宣言文을 宣布하자 獨立運動의 示威는 全國적으로 퍼지고 海外에 까지 擴大되었다. 日帝는 銃擊으로 強壓하였기에 愛國志士들은 海外로 亡命하여 國權回復과 民主共和體의 獨立韓國을 세우기 위하여 上海에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樹立하였다.

그리고 1945年 8月 15日 祖國이 日帝로부터 光復을 되찾게 되자 國聯의 決議와 選舉감시하에 公正한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1948年 大韓民國이 樹立되었다.

이렇게 하여 樹立된 大韓民國은 그憲法前文에서 3.1精神을 繼承하였음을 明白히 밝히는 동시에 臨時政府의 國號인 大韓民國이라는 號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民族統一國家를 完成하여 高麗時代를 지나 朝鮮王朝末期에 列強帝國의 干涉으로 기울어지는 國運에서 自主獨立의 엄연한 자세를 보인 그때의 國號가 大韓이요, 이것을 大韓臨時政府가 이어받아 오늘날의 大韓民國이 이를 繼承한 것이다.

「朝鮮」이란 稱號도 歷史적으로 由緒깊은 稱號이기는 하다. 그러나 半萬年史上 가장 치욕적인 日帝侵略下에서 벗어나 光復을 되찾고 民主國으로 새出發하는 마당에 日帝侵略下の 統治機關인 「朝鮮總督府」를 연상케하는 朝鮮이란 稱號는 當時의 國民感情으로 보아서는 다시 國號로 使用하기에는 달갑지가 않았다. 이런점에서 制憲國會가 우리의 國號를 「大韓民國」으로 確定한 것은 民族主體性 立場에서 볼 때 커다란 成果이며 또 큰 意義를 지니는 것이다.

나. 「大韓帝國」 法統의 繼承문제

大韓民國의 法統性を 論하기에 앞서 우선 「大韓帝國」의 法的地位부터 究明할 必要가 있다. 1910年 8月 29日 韓日合併條約으로 因하여 大韓帝國은 國際法上的 意味에 있어서 國家로서의 性格을 喪失함에 따라서 大韓帝國이라는 國家가 消滅한 것인가의 문제가 提起된다.

그러나 이러한 合併條約은 當時의 事情으로 미루어 보아 日本의 強迫에 의한 歸結이었으므로 無效라고 主張하여 大韓帝國의 國家性은

持續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大韓帝國이 國家로서의 存續與否에 關한 法的 解明에 따라, 1948年 韓半島內에 樹立된 大韓民國과 北韓政權의 法的地位도 自然히 解明되리라고 본다.

즉 大韓帝國의 國家性에 대한 存續性이 認定되는 경우 그의 領土上에 存立하는 두개의 政權 즉 大韓民國政府와 北韓政權中 어느것이 合法政府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大韓帝國의 法的地位는 1904年 2月 23日의 韓日議定書締結 以前과 이 議定書以後 1910年 8月 29日의 韓日合併條約까지의 保護關係 그리고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 樹立까지의 3期로 區分하여 究明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歷史적으로 볼 때 大韓帝國은 1844年부터 1894年 下關係約前까지 4年에 한번씩 中國에 交易을 받쳤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나 淸.日 戰爭을 終結짓는 1895年 4月 17日의 下關係約 第1條에서 中國은 韓國이 完全獨立國임을 認定하였다. 이 條約으로 韓國은 비로서 歐羅巴 國際法에 의한 完全獨立國으로서 認定을 받는 同時에 1904年 日本의 侵略下에 놓이게 될 때까지 國際法上的 完全主權國家로 存續되었다.

1904年 2月 23日에 체결된 韓日議定書의 法的性質은 하나의 保護條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保護條約의 締結로 因하여 그때까지 保有하였던 大韓帝國의 完全主權國家性이 이 條約과 더불어 消滅된 것은 아니다. 한 國家가 主權獨立國家라고 할 때 그것은 國際法으로부터의 獨立이 아니라 他國家의 命令權으로부터의 獨立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大韓帝國은 主權國家로서 他國과의 保護條約에 依하

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自由를 部分的으로 制限받는다 하더라도 그가 主權國家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1905年 11月 17日에는 저 惡名높은 乙巳保護條約(韓·日協商條約)이 強壓에 의하여 締結된다. 內容을 보면 第1條에서 「日本政府는 韓國의 外國에 대한 關係 및 事務를 監理, 指揮하고 日本國의 外交代表者 및 領事는 外國에 있는 韓國人의 利益을 保護」할 것을 規定하였고, 第2條에서는 「韓國政府는 今後 日本政府의 仲介없이는 어떤 性格의 國際條約이나 約束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規定하였다. 第3條는 「日本政府는 1名의 統監을 韓國皇帝陛下閣下에 派遣하여 外交에 關한 事項을 관장」케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 大韓帝國이 가지고 있었던 條約締結權을 統監하게 移讓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韓國과 日本間의 條約締結에 있어서 統監에게 韓國을 代身하여 日本과 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아니라 兩國政府사이에 條約의 締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에 反하여 被保護國인 韓國이 第3國과 條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에는 條約에 의하여 日本이 보낸 統監에게 指揮權이 認定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條約을 締結하여야 될 것이다.

위에서 본 乙巳保護條約은 形式上 하나의 國際法上의 條約으로 認定되는 感마저 있으나 그 實質的인 面을 考察하여 보면 日本의 強迫에 依해 締結된 것임을 立證할 수 있다. 즉 伊藤博文은 이 條約案의 受諾을 強要하기 위하여 日兵을 거느리고 宮闕에 亂入하여 會談에 直接 干涉하고 皇帝와 大臣들에게 脅迫을 恣行하였다. 이러한 伊藤博文의 脅迫에 대해 參政大臣 韓圭堯이 완강히 反對하자, 그들은

日兵을 外部로 보내 外部大臣印을 強奪케 하여 不法的으로 條約에 捺印케 하였다.

이렇게 不法的으로 調印된 條約에 대하여 高宗皇帝는 美國에 滯留中인 皇室 顧問 「휘버트」를 통하여 이 條約이 無效임을 通報하고 이 事實을 美國政府와 萬邦에 宣布할 것을 指示함에 있어서 朕은 총칼의 威脅과 強要아래 最近 韓·日兩國間에 締結된 所謂 保護條約이 無效임을 宣言한다. 朕은 이에 同意한 일이 없고 今後에도 결코 同意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하여 두었다.

여기서 「強迫」이 問題가 되는데, 通說은 強迫에 依하여 行하여진 意思表示에는 拘束되지 않으며, 國家는 그의 機關이 強迫된 것을 理由로 條約을 取消할 權利가 있다는 것이다. 萬一 國家가 이 權利를 行使하게 되면 強要된 意思表示는 아무런 效力도 發生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強迫을 가한 나라는 不法行爲에 대한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乙巳保護條約은 日本의 強迫이 恣行되었으므로 그 效力은 源泉的으로 無效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今後 乙巳條約에 根據하여 1907年 7月 24日 丁未 7條約(韓·日新協定)을 補充的으로 締結하여 大韓帝國이 保有하였던 內政에 關한 主權마저 奪取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07年 10月 29日의 在韓 日本人에 대한 警察事務執行에 關한 協定書와 1909年 3月 15日의 在韓國 外國人에 대한 警察事務에 關한 韓·日協定書에 依하여 韓國警察官은 日本官憲의 指揮 監督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09年 7月 12日의 乙酉覺書에 의하여 司法 및 監獄사무도 日本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에 남은 것

은 關稅權의 行使와 國旗揭揚權, 그리고 皇帝稱號權에 不過하였다.

이렇게 해서 韓國의 植民地化가 完成단계에 到達하자 日本은 李完用으로 하여금 日本의 괴뢰정권을 樹立케 함과 同時에 賣國民間단체인 「一進會」로 하여금 「韓·日聯邦論」또는 「合併論」을 提唱하도록 操作하였다.

이와같이 日本은 韓國民의 民意와 民聲이 併합을 願한다고 造作하고 마침내 李完用괴뢰정권으로 하여금 1910年 8月 22日 韓日併合條約에 調印토록 하고 1週日後인 8月 29日에 이를 宣布하였으니 韓日保護條約에 終止符를 찍고 大韓民國은 日本에 併합을 當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一聯의 過程을 法理論上으로 볼 때 첫째는 「強迫」이라는 問題고, 둘째는 無效宣言을 하였느냐는 問題이며, 셋째는 返還請求權을 行使하였느냐의 問題이다.

이에 대하여 韓·日間의 保護關係는 그것을 規律하고 있는 保護條約 自體가 1904年 韓·日議定書를 위시하여 1905年의 乙巳保護條約에 溯及하여 源泉的으로 無效가 되었음이 強迫의 理論으로서 立證된다.

이러한 強迫에 의해 締結된 乙巳保護條約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高宗皇帝의 宣言으로서 無效가 되었다고 봄이 妥當하다.

또한 國土強奪과 支配에 抗拒하여 全國民이 闕起한 1919年 3.1 獨立萬歲示威는 바로 韓國國民의 主權返還請求權의 行使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保護關係의 設定에도 不拘하고 大韓帝國은 國家로서 가지는

“權利能力”을 如前히 保有하였음은 勿論, 併合後에도 權利能力은 潛在的으로 存續하였고 오직 國際法上的 國家에 있어서의 “行爲能力”만을 日本이 代行하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日本에 의하여 代行된 大韓帝國의 行爲能力은 併합이 持續되는 限 休息狀態에 놓여 있게 되며 併합이 解消됨과 同時에 그 行爲能力은 自動的으로 蘇生되어 이미 持續되었던 權利能力과 아울러 行爲能力마저 回復되어 名實共히 主權國家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 韓·日議定書와 乙巳保護條約 그리고 韓·日合併條約의 無效性과 함께 3.1獨立運動이 지나는 意義 또한 크다. 民族正氣의 發露였던 3.1運動은 이를 契機로 하여 獨立運動의 一元化를 目標로 한 大韓臨時政府가 樹立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運動은 「國家를 세우자」라는 “레퍼밴담” 즉「議案의 人民發案」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投票用紙에 投票하는 代身 雙手로 萬歲를 渾身の 힘으로 의침으로서 贊成投票한 것이라 看做됨으로써 民族國家再建의 淵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1運動의 必然的인 結果로 1919年 4월에 亡命地에서 政府를 樹立하고 그 國名을 「大韓民國·臨時政府」라고 內外에 宣布하였는데 이는 現在의 國號인 大韓民國과 그 脈絡에서 一致하는 것이다. 또한 當時의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憲法上에 나타난 正統의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神人一致 中外協應하여 漢城에 義를 起한 이래 三十有日間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余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義로서 完全히 組織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勝利를 我子孫民에게 世傳하기 위

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서 臨時憲章을 宣布함」이라 하였다.

또한 憲法 第1條는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大韓民國元年 4月) 2次改憲에서는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1925年 4月 7日), 여기에서 보더라도 現行 우리憲法에서 볼 수 있는 民主共和國으로서 民主國家로서의 正統과 傳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1919年 4月 17日에 宣布되었다. 立法기관으로서 議會인 議政院과, 現代的인 政府기능인 行政府가 있는 政府로서, 1945年 光復時까지 유일한 亡命政府로서 우리民族의 正統性을 繼承하고 獨立運動의 總本山으로서 우리民族과 우리國家의 代表的인 政府임을 內外에 알리었다. 政府要員은 議政院에 나가 施政演說도 하고, 廳舍도 마련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한글 看板도 달고 太極旗도 揭揚하며 아침마다 朝會를 하며 愛國歌도 불렀다.

이 臨時政府는 1945年까지 27年을 中國땅에 있다가 8.15 解放과 더불어 歸國하였으며 歸國後 反託運動으로 國際信託管理를 물리치고 自律政府樹立運動(總選舉運動)을 벌이면서 UN監視下의 總選舉를 통하여 오늘날의 大韓民國으로 이어져 왔다.

臨時政府의 性格은 3.1運動에 淵源하고 民主共和制를 採擇한 것이 큰 특징이며 그것은 3.1建國運動이 過去의 王朝처럼 特定支配者에 의하여 展開된 것이 아니고 民衆에 依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主權在民의 民主共和制를 採擇한 것은 너무나 當然하고 自明한 것이었다. 이것은 王朝復活이 아닌 點으로서는 革命的 獨立이라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舊大韓帝國과의 無慈悲한 斷絶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上海臨時政府의 第1次 憲章의 第8條와 統合憲法(1919-25)의 第7條는 똑같이 「大韓帝國은 舊皇室을 우대함」이라는 規定을 두어 亡國皇帝에 대한 戀戀한 情을 저버리지 않았다. 특히 大韓帝國에 대한 叛亂이 아니고 大韓帝國이 日本에 亡하기 前後에 그것을 救하려고 하던 人士들이 3.1建國大運動이라는 民族意識을 覺醒하게 된 高貴한 韓民族大衆의 獨立의사표시를 總和的으로 投影集約하여 近代國家形態의 臨時政府를 樹立한 것이었다.

다. 所謂「抗日革命傳統」의 內容과 그 虛構性

우리의 正統性과는 달리 北韓共產主義者들이 내세우는 正統性이란 金日成이 滿州에서 抗日鬪爭을 展開하여 支配的인 役割을 했다고 捏造하는데서 그 基礎를 찾고 있다.

이 革命傳統에 대하여 그들憲法 第3條는 「조선민주주의 人民共和國은 帝國主義 侵略者를 反對하여 祖國의 光復과 革命鬪爭에서 이룩된 빛나는 傳統을 이어받는 革命的인 政權이다」라고 規定하였다. 이렇게 내세우는 所謂 革命傳統이라는 것도 純粹한 民族主義的 抗日鬪爭의 傳統이 아니라 맑스, 레닌主義의 異邦的 體制의 適用이라는 目的에 奉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여 그 憲法 第4條는 「조선민주주의 人民共和國은 맑스, 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조선노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생활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初期의 憲法에는 이런 條文이 없다가 1972년 12月の 改正憲法에서 부터 所謂 金日成 抗日傳統을 憲法에까지 規定化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憲法(1972.12)에 넣을 만큼 抗日傳統이라는 歷史捏造作業이 進行되었다는 말인데, 그들이 所謂 金日成 革命傳統을 내세우기 위하여 꾸며진 近代史의 虛僞內容을 要約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北韓이 펴 내놓은 近代史는 1866年의 「서맨號」事件에 金日成의 曾祖父 金膺雨를 登場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後 金日成의 父 金亨稷은 1917年에 평양에서 「朝鮮國民會」라는 抗日비밀組織을 만들고 1919年의 3.1獨立運動에서 先驅的 役割을 하였으며, 192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社會主義의 革命運動에 또한 先驅者가 되었다는 것이다. 金膺雨로 부터 4代가 되는 金日成은 1926年 14歲의 어린 나이로 <트.디>(打倒帝國主義同盟)이라는 秘密革命組織을 만들고 1936年 5月에는 <組國光復會>를 創立하여 會長이 되었으며, 滿州에서 「朝鮮人民革命軍」을 組織하고 이를 끌고 國內 깊숙히 들어와 普天堡 茂山地區에서의 戰鬪를 主導하여 勝利하고, 드디어 1945年 8月 마침내 日本으로부터 祖國을 解放시켰다는 것이 그 줄거리다.

위와 같은 事實은 文獻, 資料는 말할것도 없고, 어느 村老의 口傳에서나마 들은 者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이 있지도 않은 事實을 事實化하고자 두가지 偉大한(?)作業을 하였는데 하나가 革命史蹟地, 革命戰蹟地의 造作이요, 또하나는 虛僞찬 歷史書의 出版이다.

金日成을 中心으로 하여 居住場所, 密會場所, 樹木에 文字彫刻, 宿營地, 碑의 建立과 眞僞를 分辨할 수 없는 遺蹟, 遺物을 操作하여 歷史的 證據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革命史蹟地요, 革命戰蹟地인 것이다.

또한 이와 關聯된 代表的 出版物로는 <朝鮮民族解放鬪爭史>(조선사편찬위원회 編 1949年 10月)가 있고, <朝鮮民族解放鬪爭史>(李羅英 著, 1958年 3月)가 있으며 <朝鮮通史, 一中卷>(조선과학원 역사연구소 編 1958年 9月)이 있으며, <朝鮮近世革命運動史>(朝鮮科學研究所 編 1961年 9月)등이 있다.

이와 같이 史蹟, 遺蹟을 捏造하고, 文獻, 資料등을 造作 宣傳하고 있지만 그들의 虛僞와 歪曲, 捏造는 음폐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近世史初期에 있었던 서맨號 事件은 美國商船 서맨號가 우리와의 交易을 要求하면서 大同江을 거슬러 올라와 亂動을 恣行함으로 官民이 나서서 燒却해 버린 事件인데 北韓이 펴 내놓는 冊에서는 모두 이때 燒却의 主動者가 朴春權이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1968年 以後 刑行된 文獻에서 부터는 朴春權의 이름을 빼내버리고 金膺雨가 登場하는데 이가 바로 앞에서 말한 金日成의 曾祖父이다. 金日成 偶像化와 그 家系의 神格化를 위하여 通史도 歪曲한 좋은 例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3.1運動을 記述함에 있어서도 그 動因에 부터 歪曲하고 있다. 즉 3.1運動은 1917年 러시아에 있었던 10月 革命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으로 捏造하고 있으며 그 經緯도 33人의 民族지도자를 日帝와 野合하여 民族의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事實을 歪曲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結果에 있어서도 金日成과 같은 共產主義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失敗로 돌아간 것처럼 方向을 돌려 거룩한 民族獨立運動史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3.1運動이 어느 한 계급만의 運動이 아니고 全民族의 超階級獨

立運動이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資本家 利益을 대변하는 부르조아 民族運動」이라고 斷定한 것은 民族보다도 階級을 앞세우는 反民族的 도구마을 立證하는 것에 不過하다.

라. 大韓民國 政府의 正統性

우리가 아직 統一된 國家를 建設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大韓民國 政府樹立으로 民族國家의 正統性은 언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大韓民國 政府로 하여금 正統性의 脈絡이 이어져 온 內容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大韓帝國은 1905年 乙巳保護條約으로 獨立國家로서의 外交權을 喪失하고 1910년에는 日帝에 併合 當하고 말았다. 이로써 李氏王朝은 1392年 壬申革命 이래 27代 518年으로 그幕을 달았는데 이것은 自國內에 있어서의 禪讓이나 易性革命이 아니고 有史以來他民族에 의한 被征服을 맞본 民族的 恥辱의 事件이었다. 그러나 1919年 3.1 獨立運動을 계기로 領土는 회복치 못하였지만 大韓民國政府를 세워 國脈을 유지하였으며 1945年 解放後 臨時政府는 中國으로부터 歸國하였다. 그러나 解放 外軍의 軍政으로 부터 統治權을 얻지 못하고 反託운동, 反共운동 自律政府樹立運動(總選運動)으로 外國軍政과 맞섰다. 그리하여 이것이 美國政府에 받아들여지고 美國은 이를 유우엔에 提案하여 유우엔決議로 通過되고 1948. 5. 10 總選舉를 치른뒤 憲法을 制定하고 그에 依한 正式政府를 構成하여 大韓民國政府樹立을 보게 되었다.

1948年 8月 15日 歷史的인 大韓民國政府樹立이 宣布되자 「하지」

將軍은 同日字로 美軍政은 終熄된다고 發表하였다. 同年 9月12日制憲國會는 장차 유우엔 監視下에 大韓民國 國會로 選出될 北韓地域의 代表를 위하여 國會에 100席을 留保하여 두었다.

이렇게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자 유우엔 總會는 同政府가 韓半島에 唯一合法政府임을 宣言하는 決議를 1948年 12月12日에 48對6으로 採擇하였다. 또한 美國은 1949年 1月1日字로 韓國政府를 公式으로 承認하였고 그후 各國이 앞을 다투어 우리를 承認하였으며 1965年 2月22日 日本國과의 사이에 締結된 韓·日基本條約에서도 大韓民國政府를 唯一合法 政府로 規定하였다.

특히 大韓民國과 北韓과의 關係에서 볼 때 우리가 國際機構의 正當한 決議와 立會下에 公正한 自由民主投票에 依해 樹立된 政府임에 反해 北韓政權은 國際決議와 選舉監視를 拒否하고 또 選舉에 있어서도 事前에 造作된 黑白單一函投票에 依한 것이었기 때문에 同一國家內에서의 法的側面에서도 唯一合法性은 大韓民國 政府에 있음이 明白해 지는 것이다.

마. 國家의 象徴物 繼承

어떤 政治體制가 正統性을 지니고 있느냐의 與否를 따지는데 있어서 傳來의 國家 象徴物을 올바르게 繼承하고 있느냐의 問題도 看過할 수 없다. 이에 國旗와 國歌, 國花등을 들 수가 있다.

○ 國 旗

國旗는 나라의 象徴이다. 國家象徴이란 國家의 統治權, 國家의 尊嚴性, 國體의 自主性, 國民의 愛國心등 無形의 精神面을 有形의 標識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國旗를 繼承하지 않고는 國家의 正

統性을 論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國旗는 太極旗이다. 太極圖型이 우리國旗로 制定使用되기는 1883年 1月부터 였으나 이 圖型이 우리 民族의 神聖한 符號로 널리 쓰여진 것은 相當히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太極圖型이 바탕이 되는 太極旗가 우리 民族의 國旗로 制定되게된 動機는 日本船舶 雲揚號事件으로 因한 江華條約과 깊은 關聯이 있다. 當時 日本側은 「雲揚艦이 貴國國境을 지날때 國旗를 달아 日本軍艦이라는 것을 表示했는데 왜 砲擊을 가했느냐」라고 트집을 잡았다. 이와같이 江華島條約은 첫날부터 國旗問題를 들고 나오게 되어 當時의 大韓帝國은 國旗의 重要性을 더욱 切感하게 되었던 것이다.

흔히 太極圖案의 始初는 壬午年에 朴泳孝가 修信使로 日本에 건너갈때 배안에서 考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前에 이미 決定되어 있었다는 것이 「使話記略」이라는 修信使 手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 太極旗를 國家에서 公式으로 頒布한 것은 高宗 20年(1883) 음력 1月 17日로서 八道 四都(江華, 水原, 廣州, 開城)에 周和시키도록 王命으로서 宣布하였다.

이렇게해서 制定된 太極旗는 더욱 日帝治下에서는 3.1獨立 運動의 示威를 비롯하여 殉國先烈의 혼이 맺혔고 國權을 回復하기 위한 피로 물들인 忠烈의 깃발인 것이다. 1949年 大韓民國政府가 國旗의 圖式과 規格을 統一하고, 同年 10月 15日字로 이를 公布하였다.

北韓共產集團은 위와 같이 由緒깊은 太極旗를 外面하고, 그들 憲法에는 所謂 「國旗」에 관한 章을 베풀어 놓고 있다. 舊憲法 第9章과 新憲法 第11章이 바로 그것이며 字句上의 修正이 있었을 뿐 內容은 같다.

第 148 條 「조선인민공화국의 國旗는 깃발의 가운데 넓은 붉은 幅이 있고 그 上下에 가는 흰 幅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幅이 있고 붉은 幅의 것에 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五角별이 있다. 깃발의 세로와 가로와 比는 1對2 이다」이렇게 規定되어 있다. 새로 「人共旗」가 登場할 때 그들은 黨을 통해 人共旗가 지닌 뜻을 黨員과 一般 住民들에게 다음과 같이 宣傳啓蒙했다. 「太極旗는 封建時代의 遺物이다 새나라를 樹立했으니 새로운 國旗가 必要하다. 새國旗의 붉은 바탕은 改革과 情熱을 의미하며 藍色은 平和와 希望을 象徵한다. 中央의 흰 동그라미는 地球를 뜻하며 가운데 있는 五角별은 五大州로의 伸張을 뜻한다」고.

本是 圖案이란 보는 사람에 따라 象徵이 다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붉은 바탕은 革命을 뜻하는 것이고, 五角별은 世界赤化를 意味하는 것 같다. 그리고 上下의 藍色이 平和라는 뜻을 가졌다면 韓半島와 世界赤化 然後의 平和를 象徵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北韓集團은 戰略上 「民族」云云할 뿐이지 올바른 民族史를 繼承할 뜻은 전혀없다는 것이 國旗를 놓고도 審判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 愛國歌

한 나라의 國民, 또는 民族을 象徵하고, 또 統一的 感動을 表現하는 歌曲으로, 주로 國家的 祝祭나 行事등 公共儀式에서 부르는 노래를 國歌라 한다.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始作되는 愛國歌는 16 小節의 간결하고도 莊重하며 극히 信念的인 民族의식을 象徵하는 노래이며, 安益泰의 作曲으로 되어 있다. 日帝때 1940年 12月 20日

臨時政府國務會議에 依하여 新曲으로 슬픈曲에 맞추어 부르던 것을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 樹立과 同時에 本來의 것으로 正式 採擇되었다. 作詞者에 대하여는 安昌浩와 尹致昊說이 있다.

反面 北韓 共產集團은 괴뢰政權 樹立後 正統의 愛國歌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赤旗歌」를 불렀다. 이것은 소련 共產黨들이 10月 革命을 勝利로 이끈 이른바 革命戰士들이 勝戰을 그리는 노래다.

그러다가 「金日成장군의 노래」가 이 노래를 이어 마치 愛國歌처럼 불리었다. 하지도 않은 抗日빨지산을 事實化하기 위하여 歷史를 變造하는 作業과 함께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때가 1947年初였다.

1948年 9月이후 義務의으로 부르게 한 노래가 나왔는데 比較的 民族的인 냄새를 풍기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노래이다. 朴世永作詞, 李冕相作曲이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變質될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民族主義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으라」는 偽裝戰術이 모든 分野에서 適用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컨데, 36年이란 歲月동안 日帝治下에서 나라 잃은 民族의 悲哀를 달래며, 입속에 되씹던 愛國歌. 이제 그것을 우리 民族의 光復을 이룩하였기에 더욱 切實한 國民의 愛國歌가 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解放이 된 나라위에 우리 民族이 사랑으로 부르던 愛國歌가 아닌 愛國歌가 북녘 땅에 登場하였음은 共產主義가 우리 民族과 인연이 없듯이 그 노래 역시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노래임에 틀림이 없다.

○ 國 花

無窮花는 우리나라를 象徵하는 國花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槿域」 또는 「木槿」의 나라라고 불렀을 만큼 우리 江山에 無窮花가 널리 分布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밖에 木槿, 溲離花, 舜花등으로 쓰인 例가 있는데 木槿花가 本名인 듯 하다.

無窮花는 한때 御賜花로 지정되어 文武科에 及等한 者들에게 임금 이 下賜하던 꽃(造花)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無窮花의 國花象徵說은 그 옛날에서 根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民族은 오랜 歲月동안 無窮花를 숭상해 왔고, 3千里 金수강산을 무궁화동산으로 노래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日帝는 民族意識속에 뿌리박힌 무궁화에 대한 根源조차 抹殺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共産集團의 경우는 國花로서 「木蘭」을 定했다는 說이 있다. (歸順者인 孔卓虎, 金富成의 말) 國花로 定하게 된 動機는 다음과 같다. 1968年7月 金日成이 平壤 植物園을 訪問중 「木蘭」꽃 앞에 걸음을 멈추고 “이꽃은 山野에 많이 叢生하는 꽃이다. 滿州에서 抗日鬪爭을 할때 나는 이꽃을 매우 좋아했는데 이꽃나무가 자라듯이 革命鬪爭의 발전도 大衆的 人氣를 얻어 發展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敎示로 비약했으며 革命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學習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指定된 國花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金日成의 革命傳統敎養에 宣傳資料로 쓰여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以上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無窮花는 우리겨레 전체가 오랜 歷史를 통해 숭상해 온 것임에 反하여, 확실치는 않으나 北의 木蘭說은 金日成 個人的 鑑賞에서 評價되었다는 점으로서도 國家象徵物로서의 正統性을 지닐 수는 없다.

5. 民族史 正統성과 平和統一

우리의 統一의 理想은 「民族史的 正統性を 繼承하고 南北國民의 自由와 平等이 調和된 바탕위에 高度福祉社會」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이 理想이면서 또 統一된 祖國의 未來像이기도 하다. 이것을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에서는 民族, 民主, 自由, 福祉로 表現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民族史의 正統性에 立脚한 統一이란 어떠한 것인가?

民族史의 흐름에서 正統을 찾아 統一하자는 말은 결국 歷史의 主人인 民族成員 全體가 統一의 主役이 되고, 또 民族全體의 利益과 將來를 위한 統一型態를 택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民族의 結束 團結의 要素이다. 그러므로 民族의 한 部分인 프롤레타리아階級만이 主役이 되고 그들만이 利益을 누리는 統一일 수는 없다. 또한 資產階層이 民衆을 착취해서도 안될 일이며, 勞農階級の 獨裁를 외치는 것도 民族全體의 結束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歷史의 올바른 흐름을 타고 하루빨리 南·北이 平和를 되찾아 統一로 옮겨가면서 우리 韓半島全域에 個人의 自由와 權利가 民族繁榮의 活力이 되고 그것이 民族끼리의 平等과 自由의 調和를 이루어 마침내 民族發展의 傳統을 잇게 되는 것이 民族歷史의 正統위에선 統一인 것이다.

民族史의 脈絡에서 平和統一은 어떻게 說明될 수 있는가? 統一을 平和的으로 하자는 것은 統一自體가 民族의 團結된 統合을 前提로 한다. 그러므로 갈등과 反目を 隨伴하는 武力(戰爭, 暴力)에 依한 統一은 民族이 바라는 統一方法이 될 수 없음은 勿論 統一되었을때 民族成員들을 신속히 結束시킬 수가 없다. 民族의 結束은 앞에서 보았듯이 過去의 歷史가 不斷히 제시했던 教訓이기도 하다. 이러한 歷史的 教訓이 分斷狀況에 있는 南·北韓民族에게 結束과 統一을 召命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大韓民族의 憲法精神과 平和統一政策의 基調인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그리고 그 展開過程과 不斷한 對北提議들은 民族史의 正統흐름에서 보아도 잘 合致되는 것이다.

民族史 正統性的 理論體系는 앞에서 살펴본 民族史의 흐름이라고 하는 動態的 側面과, 그社會의 優秀성과 進路를 暗示하는 靜態的 側面이 있다. 이것을 時間的으로 보면 現在와 未來에 해당한다. 現在의 南北韓을 比較하였을 때 우리體制가 優秀한 體制라는 점에 대하여는 구태여 여기서 장황하게 說明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그보다도 우리의 未來 즉 統一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條件, 다 시말해서 統一型態面에서도 깊이 생각되어야 한다. 北韓集團은 앞으로의 統一은 朝鮮민주주의 人民共和國의 統治權이 行使되는 條件에서 이룩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共產主義的 統一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現在의 北韓共產體制를 통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共產化統一을 연상해 볼 수 있다. 그 연상은 바로 우리體制가 優秀하고 우리體制에 의한 統一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도 하는 것이다.

社會的 水準에서 보면 北韓에서는 個個人的 權利가 認定될 수 없으며 누구나 「集團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組織속에서 살아간다. 金日成에 의하면 人間이 組織을 벗어나게 되면 心中에 있는 個人主義, 利己主義가 싹터 所謂 「共產」하는데 妨害가 될뿐 아니라 나아가 共產主義建設을 가로 막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共產主義建設이라는 目標에 人間の 個權과 創意性을 無視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共產體制下에서 民族問題는 勞動階級이 主權을 掌握하고 生産手段을 社會主義的 所有化하는 것과 깊이 關聯된다. 이같은 條件을 바탕으로 하는 民族을 그들은 「社會主義民族」이라 한다. 따라서 北

韓에서의 民族問題는 階級問題로 歸着한다. 그들은 共產主義者만이 民族의 엘리트요, 民族意志의 담당자이며 또 이들로 構成된 黨獨裁만이 民族全體를 支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是認하지 않는 자는 곧 民族의 반역자로 規定된다. 이러한 民族에 대한 階級的 觀點은 우리가 주장하는 民族과는 正反對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民族概念은 우리의 領土위에 사는 血緣, 言語, 文化를 같이 하는 韓民族 全體를 對象으로 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그들이 設定한 기준에 따라 勞動者, 農民, 勤勞인테리만이 民族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的 階級은 統合이 아닌 分裂意識을 助長하기 마련이다. 더욱 分裂로 인한 民族의 恨을 풀려는 統一志向 과정에서 階級的 分裂助長은 反民族的이란 점에서 指彈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的 側面에서 보면 北韓은 共產主義的 勞動階級을 重要視하는 만큼 모든 住民에게 勞農階級意識을 갖도록 要求하여 勞動力을 착취한다. 그들은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이라는 美名下에 金日成 1人을 中心으로 한 特權層을 擁護하는데 惡用함으로서 經濟效果와 成長面에서 相對的으로 弱化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體制는 個人的 基本權을 기초로 한 民族主體의 富強에 力點을 두며 이것은 바로 民族의 對外的 發展의 根源이 된다. 특히 1976年以後 우리의 輸出高의 急増과 관련된 經濟力量의 蓄積을 根據로 하여 自由民主的 經濟構造의 優越性을 再確認할 수 있다.

家族體系를 中心으로 보면 北韓에서는 親族制度가 消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社會組織의 중요한 機能을 수행한다. 그리고 北韓은 社會集團性과 黨組織의 上位속에서 家庭을 細胞單位로 간주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細胞로 변모된 家族概念은 存在하지만 血緣에 기초한

親族組織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制度속에서 個人生活의 근거는 파괴되고 人間을 巨大한 機械속의 附屬品으로 轉落시키는 結果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서는 人間幸福의 根源을 家庭에 두고 있다. 우리의 第五共和國 憲法이 幸福追求權과 이것을 國家의 義務로서 規定한데 比하면 極端的 逆行이라 아니할 수 없다.

文化, 藝術面에서 보면 北韓에서는 民族的 形式과 社會主義的 內容이라는 틀을 통해서 階級性과 革命性을 고취시키는 用途로 傳統文化를 歪曲하고 있다. 더구나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異質文化를 傳統化하려는 企圖에서 보면 우리文化의 抹殺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文化, 藝術의 傳達道具인 言語하나만 보더라도, 우리社會에서는 言語가 人間思想과 感情을 傳達하는 手段이지만 北韓에서는 革命과 共產主義建設의 강력한 武器이기 때문에 社會主義 理念과 부합되는 言語만을 普及하고 그렇지 못한 言語의 活用을 금지 시킴으로서 言語의 異質化를 深化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民族文化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적극 참여토록하여 個人의 創意와 發表를 권장토록 한다.

또 北韓에서는 우리 祖上들이 信奉하던 佛敎, 儒敎, 基督敎, 土俗宗敎등의 宗敎遺産은 말할것도 없고, 衣, 食, 住등의 生活樣式, 冠, 婚, 喪, 祭등의 風俗등 生活文化 全般에 걸쳐 強制로 抹殺 또는 異質化시켜 傳統的 固有文化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金日成 偶像化와 그 家系의 神格化를 위하여 所謂 革命遺蹟地니 하는 虛僞 史蹟을 捏造하여 우리의 傳統이 아닌 革命文化를 操作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比較속에서 앞으로 統一過程에서 어느쪽이 中心이 되어야

하는가? 할때 選好가 自明할 것이다.

그러나 平面的인 社會體制의 重要함 못지 않게, 悠久한 歷史를 가진 歷史民族으로서는 民族史의 主流에 接近 또는 線上에 있는 比較檢討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縱的으로는 民族史의 傳統과 比較하여 橫的으로는 南과 北의 現實的인 比較와 어느 側이 法的으로 國家의 正統을 繼承하고 있는가등의 比較를 통하여 우리民族의 合理的인 統一型態를 選擇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統一名分이며, 歷史民族으로서 歷史意識에 定礎된 統一名分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다시 말하면 民族史의 흐름, 國家法統上의 繼承, 現實體制의 優秀性, 南北同胞를 幸福하게 할 수 있는 未來指向性등 多方面에서 南·北韓 그 누구가 民族史의 正統性을 繼承하고 있고, 또 繼承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解答이 自明할 것이라고 본다.